

구 기무라 창고

기무라 창고는 1894년에 기무라 가문에 의해 지어졌으며, 처음에는 오타루 앞바다 해역에서 잡은 청어로 만든 비료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. 비료는 이후 혼슈 남서부의 쪽밭과 목화밭에 사용하기 위해 출하되었습니다. 이 창고는 기무라 가문이 소유하고 있던 9개의 창고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이며, 사카이마치 거리에 있는 가장 큰 창고 중 하나입니다. 사카이마치 거리는 20세기 중반까지 오타루시의 무역과 소매의 중심지였습니다. 이후 1983년에 기타이치 유리에 의해 개수되어 상점 겸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. 역사적 건축물인 기무라 창고의 개수와 재이용이 성공을 거둔 것을 계기로 사카이마치 거리와 오타루 운하 주변의 옛 창고에 다른 상업 시설이 문을 열었고, 미나미하마 지구는 매력적인 쇼핑 지역으로 거듭났습니다.

존속할 수 있는 건축

사카이마치 거리는 매립지에 만들어져 있으며, 거리의 항구 쪽에 있는 창고는 물가에 있었습니다. 청어로 만들어진 비료는 기무라 창고 앞에서 하선되어 레일을 따라 광차로 운반되었습니다. 이 레일이 깔린 석조 복도에 의해 창고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20세기 중반에 남획으로 청어 산업이 쇠퇴하자 건어물을 저장하는 데 이 창고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. 주요 항구로서 오타루의 지위는 점차 상실되었고, 1960년대까지 이 주변의 다른 많은 창고와 마찬가지로 기무라 창고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. 기무라 창고는 사할린전나무와 가문비나무 뼈대에 응회석을 고정한 편백나무 바닥의 창고이며, 한 세기가 넘도록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

오타루의 유리 유산

1901년에 아사하라 유리로 문을 연 기타이치 유리는 오타루 땅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. 전기가 아직 보급되지 않고 석유램프가 생활필수품이었던 시절에 유리 불기법(*Glass blowing*, 입으로 바람을 불어 넣어 유리를 성형하는 기법)으로 석유램프를 제조했습니다. 이후 아사하라 유리는 청어잡이를 할 때 줄을 띄우는 공 모양의 부유물을 유리로 만들었습니다. 1920년대까지 직원 수가 약 400명에 이르렀으며, 홋카이도 최대 규모의 유리 제조업체 중 한 곳이 되었습니다. 전기와 플라스틱이 보급되면서 유리로 된 램프와 공 모양 부유물의 수요는 감소하며 1960년에는 오타루에 남은 유일한 유리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.

1971년에 판매 부문의 명칭을 기타이치 유리로 변경하여 다른 유리 제품과 함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램프의 제조 및 판매를 시작했습니다. 램프는 오타루 기념품으로 지금도 인기가 있습니다. 오타루역의 입구 홀은 석유 대신 전구를 사용한 기타이치 유리의 유리 램프로 조명을 밝히고 있습니다. 구 기무라 창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레스토랑 ‘기타이치 홀’의 내부에는 167개의 유리 석유램프가 빛나고 있으며, 이 램프는 매일 아침 수작업으로 불을 밝힙니다.